

# 北方材(침엽수) 합판 사용으로 환경보호와 경제성 제고



## 문 학 술

(임정연구회 고문)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회의 이후 선진국인 구미(歐美)를 중심한 공업국들과 개발도상국인 열대목재 생산국간에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즉 전세계는 선진국에서 주장하는 환경보호와 개발도상국에서 주장하는 자유무역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가에 최대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보호의 우선을 주장하는 선진국측은 생활필수품이 아닌 것은 열대목재를 이용하지 말며, 희귀동물의 모피같은 것도 수입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개발도상국들은 남양재의 불매(不買)나 수입제한 조치가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감정이라 이러한 문제는 각국이 교섭을 통해 후진국의 유일한 수입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제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구미측은 열대림의 파괴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보고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수량을 제한하는 대응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예로 오란다의 경우 열대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찬동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80%가 열대림 목재의 사용을 줄이고, 일반 주택은 물론 공공시설에도 열대목재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례(條例)를 제정해서 이를 국민들에게 주지 침투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도 열대목재의 수입량이 EC 제국의 총 수입량과 같아서 연간 2천1백만 m<sup>3</sup>를 수입하고 있는바 이는 전세계의 40%를 점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 환경단체들도 각지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서명운동과 국회에 진정을 하여 전국 19개 자치단체가 열대목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본 임야청 장관의 자문기관은 열대목재의 수입 규제

를 함으로써 원산지에서는 공급과잉이 되어 원산지 목재가격이 하락되고, 그 결과 그들이 이익 확보를 위해 한층 목재납벌을 유인함으로써 보다 환경 파괴가 심화되는 바 이처럼 수입규제를 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이론도 있기는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근 연간 약 3백만 m<sup>3</sup>의 열대목재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의 30% 이상이 시멘트 형틀재 합판으로 제작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EC, 일본, 우리나라등 열대목재 수입 14대국의 열대목재 수요추세를 보면 대개 시멘트 형틀재 합판 제조용으로 약 20% 이상이 소비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제는 이 합판 형틀재는 보통 남양재의 경우 2~3회 사용으로 수명이 끝나 이를 버리게 되므로 엄청난 남양재 소비가 되는 것이다.

일본도 남양재 연간 도입량 2천 1백만 m<sup>3</sup> 중 20%인 약 4백만 m<sup>3</sup>가 건축현장에서 시멘트 형틀재로 사용되고 있어 일본 오사카에서는 이 시멘트 형틀재 합판의 대체재로서 알미늄 금속을 사용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으나 알미늄 대체재 가격이 열대목재 제품가격 보다 20배 이상이 되고 사용횟수에서도 열대목제품 보다 몇회나 더 사용할 것 인가도 크게 의문이 되고 있다 한다.

그래서 열대목재 사용제한으로 환경보호를 하자는 것과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나라들간의 의견은 GATT 사부국에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 별도 부서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지만은 문제의 초점은 열대목재의 대체재가 최대의 관심이 될수 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최근 침엽수 합판 사용에 대

한 여론이 등장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MDO(中密度) 오바래 이 시멘트 형틀재 합판의 등장이다.

이는 북미(北美)에서 수입되고 있는바 이 합판은 침엽수 솔송나무와 독일가문비나무 원목을 천일(天日) 건조한 후 일정한 크기로 자르고 깎아 인공건조하여 합판을 만들고, 다음에 표면에 후에노루수지(樹脂)를 살포하여 만든 것으로서, 이 합판을 시멘트 형틀재용으로 사용하면 보통 20~40회 사용해도 합판 자체가 흠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이 합판제조에는 열대목재로 만드는 합판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열대목재로 만드는 합판은 2~3회 사용하면 마손되어 폐기해야 하지만 이 침엽수 합판은 적어도 15회 사용할수 있어 원가면에서 50~75% 절감이 된다고 한다.

다만 이 제품이 북미에서 수입되는 관계로 물품 남기가 문제이고, 그렇다고 수입재고량을 많이 쌓아두면 창고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점도 있다.

그러나 지금 환경보호 차원과 비용절약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각 건설업체가 이를 수입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우리나라 합판 업계에서도 미송을 도입하여 이 침엽수 합판을 제조함으로써 남양재 사용을 억제하면서 지구환경보호와 목재자원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되면 열대림 파괴를 방지하는데도 일조가 될 것임은 틀림없을 것이다.

〈자료·농수축산신문 1994. 5. 2〉